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6.4.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‘동북아 오일허브’ 국내 기업들 볼모로 사업 추진” 및 “국내업체에 임대료 더 비싸게 받아” (‘16.4.6(수) 내일신문)

1. 기사내용

- 정부의 ‘동북아 오일허브 여수 사업’이 낮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를 볼모로 폭리를 취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① “15년 2월 여수 저장시설(이하 ‘OKYC’)의 저장률은 38%에 불과했으며 이는 낮은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’ 관련

- 석유 저장시설의 사업성은 특정시점에서의 ‘저장률’이 아니라 시설임대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‘계약률’에 따라 결정됨

* 시설 임차인은 계약된 저장 시설 內 석유 입·출고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결정하며, 이에 따라 탱크터미널의 ‘저장률’은 수시로 달라지게 됨 → (예) 건물 임대 수익은 ‘특정 시간대의 건물內 사람 수’가 아닌 ‘기간 내 공실률’에 의해 결정

- OKYC의 계약률은 ‘15.2월 당시 81.5%, ‘15년 연간 93.3% 수준이었던 바, 여수 오일허브의 경쟁력이 없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

※ OKYC의 계약률은 사업 개시(‘13.3월)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‘16.3월말 현재 99.7%의 계약률을 보이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

- ◆ OKYC 계약률 : (‘13) 75.6% → (‘14) 87.7% → (‘15) 93.3% → (‘16.3) 99.7%
- ◆ OKYC 물동량 : (‘13) 13,113천B → (‘14) 48,957천B → (‘15) 88,595천B
- ◆ OKYC 항차(航次) : (‘13) 53회 → (‘14) 156회 → (‘15) 1,018회

- ② ‘OKYC 주주사인 국내 정유사들에게 과도한 기간(8년)의 사용의무 부과’ 관련

- 주주사들이 일정기간 시설 사용 또는 수익을 약정하는 것은 싱가포르 등 국제 석유저장시설 사업의 일반적인 형태이며 주주사 스스로의 시장 판단에 의한 것인 바,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

- OKYC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정유사 및 해외 기업 (중국항공석유) 등 주주사의 자발적인 판단과 동의 하에 국내·외 주주간 동일 기간, 동일 사용료로 사용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음

* 유종(제품유>원유)에 따른 저장요율 차이 외에 국내주주사(석유공사, 국내 정유사) - 해외주주사(중국항공석유(CAO)) 간 사용약정 계약의 기간/사용료 차이는 없음

- 더 나아가 국내 주주사 중 SK인천석유화학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수요에 따라 의무 사용약정(100만배럴) 이상의 저장 물량(135만 배럴)을 자발적으로 추가 계약한 바 있음

- ③ ‘국내기업에게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’ 관련

- OKYC 국내·외 주주사의 탱크 사용료는 계약 당시(‘11년) 싱가포르·네덜란드 ARA 등 기존 오일허브 지역의 저장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여 해외 시설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음

* (OKYC 주주사 저장요율) \$4~5/입방미터/월 // (‘11~’12년 당시 싱가포르 저장요율) \$5~\$6/입방미터/월, (‘11~’12년 당시 ARA 저장요율) \$4~\$5/입방미터/월

- ‘16년 현재 단기임대시 임대료는 주주사 사용료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나 이는 계약 시점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,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가격책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
박재영 과장(044-203-5220), 문상민 서기관(044-203-5224)